

# 선암사 감로왕도 최초 공개

## 불교중앙박물관 상설전

선암사 감로왕도가 대중들에게 최초로 공개된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덕문)이 2014년 상설전을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인각사 발굴 유물과 조계사 상량식 유물은 물론 보물 1553호 선암사 서부도암 감로왕도가 최초로 공개돼 눈길을 끈다.

불교중앙박물관 김추연 학예연구사는 “지난해 인각사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매우 평가가 높았고 조계사 유물 전시 역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전시는 이들 전시의 연장 형태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 최초로 공개되는 선암사 감로왕도가 이번 전시의 의미를 더해줄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전시되는 유물은 보물 5건을 포함해 총 92건 277점이다.

인각사의 발굴유물을 중심으로 한 제 1 전시실은 총 55건 125점의 유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인각사는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연 스님이 주석해 넓은 사역을 지닌 사찰이었으나 조선시대 송유역불정채과 함께 쇠락의 길을 걸었다. 2000년대 이후 본격적인 발굴로 인각사의 사역이 복원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년 11월 기획특별전이었던 ‘인각사와 삼국유사’ 전시를 압축적으로 전시해 인각사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9세기 무렵 출토된 10여점의 인각사 불교금속공예품은 그 하나 하나가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시는 인각사의 불교금속공예품들과 주요 발굴유물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신앙의 힘으로 창조한 불교미술’을 주제로 하는 제 2 전시실에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공간을 장엄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



불교중앙박물관이 2014년 상설전을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사진은 선암사 서부도암 감로왕도(보물 1553호)

### 인각사 금속공예품 한 자리에

### 조계사 창건 역사도 엿볼 수 있어

### 277점 유물 5월 31일까지 전시

공미술품을 접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범당 내부를 장식한 불화와 범종·향완·사리장엄구 등 여러 불교공예품들을 전시실로 옮겨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했다.

선암사 성보박물관에서 출품된 7건 7점의 불교미술품들은 단연 주목할 만하다. 조선 후기 1736년에 제작된 선암사 서부도암 감로왕도는 조선 후기 불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18세기 감로왕도 최전성기의 전형을 이루는 작품이다. 또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승인 의겸 스님이 제작한 불화로, 스님의 전성기 화풍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선암사 동종은 조선 후기인 1657년에 제작된 것으로 본래 보성군 대원사 부도암의 종으로

주조된다. 이 종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주조장인 김용암(金龍岩)이 제작한 것으로 17세기를 대표하는 중요한 유물이다.

‘일제강점기의 불교와 조계사 대웅전의 건립’을 보여주는 제 3 전시실에서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사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조계사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 각황사(覺皇寺)로 사대문 안 최초의 사찰로 창건되었다. 1938년 자주적인 한국불교를 세우기 위한 총본산으로 지금의 조계사 대웅전을 설립하고 한국불교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는 의미에서 북한산 태고사(太古寺)를 이전하는 형식으로 태고사로 명명한 뒤, 1954년 불교정화운동을 통해 지금의 조계사(曹溪寺)로 불려지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1938년 조계사 대웅전이 건립 되었을 당시 납입되었던 상량유물이 전시된다. 이 상량유물들은 일제강점기 불교의 상황뿐 아니라 당시의 생활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으로 총 18건 112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02)2011-1954 정혜숙 기자

# 남녘 제주서 불어오는 찬불 향연

## 약천사 어린이합창단 제4회 공연

봉축의 불바람이 남쪽 제주에서 불어오고 있다. 올해로 창단 다섯돌을 맞은 약천사 리틀북다 어린이합창단(지도법사 성원스님)이 2월 15일 서귀포 김정문화회관에서 제 4회 정기공연을 가졌다. 특히, 이번 공연은 애니메이션 ‘오세암 가는 길’과 합창 공연을 재구성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 제주 봉축 행사에서 재공연 될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도법사 성원 스님은 “이번 정기공연은 기존에 지루하게 느껴졌던 합창공연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획으로 공연됐다. 인기에 비영원한 애니메이션 ‘오세암’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합창제에 맞게 영상을 재구성했다. 공연은 합창과 함께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듣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 리틀북다 어린이들의 합창을 즐길 수 있도록 꾸몄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성원 스님이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도 맡았으며, 최세영 PD가 영상편집을 협조했다. 성원 스님은 어린이 및 보호자 아이들에게 오세암을 보여줬는데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는데서 아이디어를 얻어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3개월 정도의 연습 기간을 거쳐 공연을 완성했다.

“그동안 합창단의 활동이 뜸해서 이를 활성화시켜보자 기획된 공연이기도 해요. 그런데 매주 일요일 마다 나와 3개월 정도의 연습을 했죠. 그런데 15곡 연습하기가 힘겨운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마치고 같이 영화 관람도 하고 기분 전환도 시켜 가면서 공연을 준비하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합창은 애니메이션 오세암의 영상으로 막을 열었다. 1부 ‘바닷가에서’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행복한 어린시절을 보내는 오세암의 영상을 무대에서 연출해 냈다.



창단 다섯돌을 맞은 약천사 리틀북다 어린이합창단 2월 15일 서귀포 김정문화회관에서 제 4회 정기공연을 갖고 봉축 전야제의 재공연을 준비중이다.

### 애니메이션 오세암 재구성

### 스토리 합창공연으로 승화

### 올해 봉축 전야제서 재공연 예정

여기에는 단원의 어머니(김현정 씨)가 어머니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단원들은 제주 전통의 갈옷을 입고 출연하여 섬집아가기를 비롯한 동요를 부르며 막을 열었다.

2부 ‘백담사의 즐거운 생활’에서는 스님들과 함께하는 산사의 하루일상을, 3부 ‘오세암 가는 길’은 희망을 안고 오세암으로 겨우안겨 떠나는 즐거운 산행을 주제로 ‘우리들의 말씨가 꽃씨가 되어서’ 등 경쾌한 곡들이 합창됐다. 4부 ‘관세음보살 친견’은 눈 쌓인 오세암에서 홀로 남아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는 오세암의 영상에 한복을 곁들여 차려 입은 리틀북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석가모니불’ 등을 불러 관중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마지막 ‘관세음보살’ 정경에서는 오세암자가 꿈에 그리던 어머니를 만나 함께 손잡고 무대 위로 등장하는 장면을 연출 참가자 모두가 관세음보살을 정경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영상과 함께하는 합창제는 어린불자들이 부르는 청아한 노래 소리와 더불어 어느 때보다 큰 감동을 전하고 100분 동안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현재, 리틀북다 어린이 합창단은 20명이 넘는 대기 단원들이 있을 만큼 그 관심이 뜨겁다.

성원 스님은 “이번 공연에서는 40여 단원이 동참을 했는데 공연을 보고 단원 신청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20여 명이 대기자로 연습을 하고 있을 만큼 어린이 합창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봉축 전야제 행사 때는 이 모두가 함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서귀포승가연합회장 해일 스님, 서귀포문화원 이사장 도중 스님, 서귀포봉축위원회 회장 진우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우근민 도지사, 양방식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서귀포시행단체장, 제주불교여성합창단 지휘자 이춘기 교수와 제주도 내 합창단 단장 및 단원들을 비롯해 불자와 서귀포 시민들이 참석했다. 정혜숙 기자

# “예술가는 정년 따로 없지요”

## 불자 무용가 김복희 교수 퇴임 공연



이 있지만 제도권 밖에서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올해로 10년째 한국무용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복희 한양대 교수(사진)가 이달 정년퇴임을 기념한 공연을 2월 22~23일 이틀간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가졌다. 정년퇴임 기념 무대에는 김 교수가 1999년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의 꼽추’를 한국의 남사당패 이야기와 접목해 안무한 ‘천형, 그 생명의 수레’를 올렸다. 첫날에는 15년 전 초연 무대 무용수들로 구성된 ‘울드 드림팀’ (김복희 손관중 김남식 등)이, 둘째날에는 젊은 무용수로 구성된 ‘뉴 드림팀’ (김성용 박종현 박은영 등)이 공연을 펼친다. 여기에 이철준 작가의 소설 ‘눈길’에서 영감을 얻어 안무한 신작 ‘살꽃 바

람꽃 V. 눈길’도 선보였다. 정년을 앞둔 김 교수는 제자들의 성장에 기쁨을 느낀다고 전한다. “나이가 들었다는 허무감도 있지만 주변을 돌아보니 제자들이 훌쩍 컸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 허무감보다는 행복감이 더 커요.”

### 전통과 불교 기반한 창작무

### ‘법멸의 시’ 등, 다수의 작품 창작

그동안 김 교수는 심우도 원혜대사 등 불교적 정서를 작품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어머니가 신실한 불자였어요. 어린시절에는 방학 때마다 대구 동화사 암자에서 지낼 만큼 절집과 친근하게

지냈죠. 효봉 스님, 법정 스님, 성철 스님 등과 인연이 깊었어요. 불교는 늘 내 삶과 작품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쳐왔죠.”

특히, 그녀의 첫 창작 공연 ‘법멸의 시(詩)’는 참선 과정을 춤으로 표현해 주목을 받았다. 스물셋의 나이에 개인무용단을 만들어 1971년 제1회 현대무용발표회에서 무대에 올린 창작작품이 ‘법멸의 시’이기도 하다. “스님들의 선방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냈는데 돌이켜 보니 20대에 그렇게 심오한 주제로 춤을 풀어냈다는 것이 그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꾸준하게 동양적 정서와 불교적 정서를 반영한 작품을 만드는 데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8월 아르헨티나 공연을 앞두고 있으며 다음 작품 구상도 틈틈이 하나씩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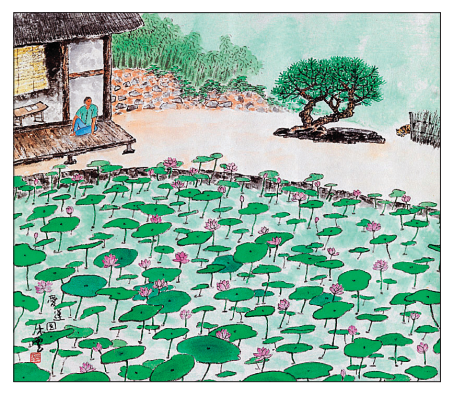
# 오견규 작품전 2월 28일까지...전남대 병원서

한국화가 오견규 작품전이 2월 28일까지 전남대병원 1동 로비 CNUH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세상에 꽃 아닌 것 없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는 매화·연꽃·동백 등을 소재로 한 ‘봄이 오는길’ ‘선운사 동백’ ‘꽃을 따다가’ ‘애련도’ 등 최근작 20여점이 선보인다.

먹빛의 담백함과 정밀한 필치가 돋보이는 그의 작품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박함 그리고 초연함을 만날 수 있다.

목은 오견규 작가는 아산 조방원 선생에게 사사 받았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광주시전,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



오견규의 ‘애련도’

했다. (062)220-5092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경이로운 최면의 세계!!

# 전생요법·빙의치유법

인간의 잠재의식 직접 조절- 강력한 개선효과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도 도울 수 있다

### 전 생 요 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여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 빙 의 치 유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 사 주 명 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격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나니 형사 약사요...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상담 및 공·사기업체 출장강의 환영

http://www.hypnos114.com  
**042) 222-0737**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한재 집중주

잠재능력 개발의 산실

## 한국 최면과학원

1회 무료수강 가능

-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 최면지도사시험회 기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KBS 굿모닝 대한민국, SBS 미워도 다시 한번, MBC 생방송 오늘아침, JTBC 무한挑戰, MBN 생방송 특종생생, tvN 생방송 빅뉴스, MBC 24시간, SBS 11, MBC 12, MBC 13, MBC 14, MBC 15, MBC 16, MBC 17, MBC 18, MBC 19, MBC 20, MBC 21, MBC 22, MBC 23, MBC 24, MBC 25, MBC 26, MBC 27, MBC 28, MBC 29, MBC 30, MBC 31, MBC 32, MBC 33, MBC 34, MBC 35, MBC 36, MBC 37, MBC 38, MBC 39, MBC 40, MBC 41, MBC 42, MBC 43, MBC 44, MBC 45, MBC 46, MBC 47, MBC 48, MBC 49, MBC 50, MBC 51, MBC 52, MBC 53, MBC 54, MBC 55, MBC 56, MBC 57, MBC 58, MBC 59, MBC 60, MBC 61, MBC 62, MBC 63, MBC 64, MBC 65, MBC 66, MBC 67, MBC 68, MBC 69, MBC 70, MBC 71, MBC 72, MBC 73, MBC 74, MBC 75, MBC 76, MBC 77, MBC 78, MBC 79, MBC 80, MBC 81, MBC 82, MBC 83, MBC 84, MBC 85, MBC 86, MBC 87, MBC 88, MBC 89, MBC 90, MBC 91, MBC 92, MBC 93, MBC 94, MBC 95, MBC 96, MBC 97, MBC 98, MBC 99, MBC 100

##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秘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누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환)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책도문고/블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홍지서림/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친한 판매중!!

인비록 (죽어서 가는 길)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고, 살아가는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이후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쁜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blog.co.kr

##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 스스로 물어 알게됩니다

# 天易六氣經

## 궁물

### 궁금하면 물어보라

◆ 천역육기경은 우주삼원에서 받았습니다!

◆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 답답한 삶의 돌파구!

운기·사업·소원·결혼·매매·대인·실물·가출인·출산·소송·여행·취직·시험·이사·질병·지능(직업)

이들을 알고자 하시면 육기주를 두 번 굴리세요. 문제에 답이 풀립니다! 누구나 쉽게 궁물할 수 있습니다.

“책” 궁물은 영원한 동반자!!!

주문처 : 1588-5654. 010-3743-9943

정가 10만원 / 계좌 : 농협 195-02-157774 박규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며, 주문시 즉시 배송하여 드립니다.